

오피니언

다산포럼

선경식



혁신풀이(革實不二), 개혁(改革)과 실용(實用)은 둘이 아니고 하나다. 개혁과 실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개혁의 목표는 실용이고 실용은 개혁을 통해서 완벽해진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개혁과 실용이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국민은 경제와 민생에 관심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개혁에만 몰두한다.” 5·31 지방선거후 언론과 정치인들이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겨냥한 지적이다.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의문이 따른다. 개혁과 민생은 서로 배제되는 사안인가. 개혁을 하면 경제와 민생을 챙길 수 없는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개혁을 해서는 안 되는가. 이러한 의문에는 개혁과 민생이 다르거나 연관성이 없다는 이분법이 전제되어 있다.

개혁에 매진할 경우 민생을 도외시해도 된다는 주장은 누가 하고 있는가. 개혁을 할 때는 민생과 같은 저급한(?) 문제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개혁은 무엇인가. 무엇

을 하자는 개혁인가.

또 반대로 개혁이 민생의 발목을 붙잡는다는 논리는 누가 전파하는가. 민생을 위해서는 개혁은 접어들어야 하고 개혁 따위를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사고는 누가

개혁과 실용은 둘이 아니다

가 확산시키는가.

참으로 이상야릇하고 황당한 논리가 관을 치고 있다. 전자는 개혁지상주의자의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요, 후자는 개혁을 두려워하는 수구분자들의 궤변이다. 모두 다 이분법에 터를 잡고 있는 분열주의적 인 모습이다. 전자는 개혁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짝퉁 개혁 논리이며, 후자는 개혁기피론자들의 기득권옹호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두 부류 모두 경제 대상이다. 극단으로 몰고 가 관을 깨자는 저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개혁과 실용, 개혁

과 민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다.

열린우리당이 개혁과 실용과로 나누어 갈등하는 것은 스스로 함정을 파는 일이다. 실용을 무시한 개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개혁을 외면한 실용은 또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왜 참여정부는 과감히 경제를 살리는 개혁을 추진하지 못하는가. 왜 당당하게 민생을 살리기 위한 개혁을 시도하지 못하는가. 개혁의 목표가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이요, 다만 일부 개혁진영이 개혁을 민생과

개혁이 아니다.

보수적 개혁을 추구하던 진보적 개혁을 지향하던 개혁과는 실용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용은 개혁과의 당연하고도 확실한 목표가 돼야 한다. 실용을 외면한 개혁은 모래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권의 지방선거 참패가 이를 잘 말해준다. 지방선거 결과는 개혁지상주의의 오도된 개혁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다. 개혁이 서민의 삶을 파괴화시키는 것이라면 그런 개혁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실용주의는 낡고 병든 것을 그대로 고수하는 수구(守舊)주의가 아니다. 실용의 명분 뒤에 숨어서 수구의 온존에 환호하거나 수구의 연장을 도모하는 것은 실용주의의 참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실용은 개혁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다. 더더구나 실용은 수구세력의 합리화를 위한 명분도 아니다. 실용주의는 오히려 개혁주의와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 실용은 개혁주의의 성과물이 된다. 거듭 강조하거나 개혁은 목표가 아니고 수단이다. 개혁을 목표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실용주의적 개혁세력의 등장과 결집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獨島 해류조사 앞둔 대통령 발언 적절했나

지금 한일간에는 다음달 3일부터로 예정된 우리측 독도주변 해류조사를 놓고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다. 지난 4월 일본이 독도인근 해저 지형조사를 목적으로 탐사선을 띄우려 할 때 발생했던 일촉즉발의 위기가 이번엔 우리측 해류조사선 탐사활동으로 인해 재발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정부는 명백한 한국 영토인 독도 인근에서의 해양학적 조사행위에 타국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아직껏 두나라가 독도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유사시 일본도 해상 강제력 거동 물리력 사용을 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것은 뻔하다.

예상대로 지난주말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관방성과 해상보안청 등이 회의를 열어 한국조사선이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에서 조사를 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켜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의

고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측 입장에 강경하다. 해양경찰청장은 우리측 해양조사선 활동에 대해 일본 순시선이 방해할 경우 후위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해 이를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가 조성되고있는 것이다.

이처럼 미묘한 시기에 노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보다 우월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일본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정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는 미묘한 발언을 했다. 지난 주 해양경찰청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나온 이 말은 물론 해경의 사기를 돋우고 노고를 치하 하느라 나온 말이지만 그 표현이 마치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돼버렸다.

우리는 대통령의 발언이 상호 정면충돌을 회피하고자 하는 한·일 외교관인의 노력과 상치될 뿐 아니라 감당 못할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위기를 키우는 대통령은 곤란하다.

한미 FTA협상 정부 입장 도대체 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대해 정부·여당의 입장이 오락가락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미 FTA 체결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던 정부와 여당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제와서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대통령은 지난 22일 대외경제정책위원회에서 “한미 양국 최대의 균형과 내용적 요건이 맞지 않을 경우 시기에 쫓길 이유가 없다”며 속도 조절을 약속했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던 종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23일 국회 포럼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돼선 안된다”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반대 단체

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성과를 홍보하면서 임기내 체결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런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데다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속도 조절론에 가세한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실무팀장들이 대거 교체된 것도 심상치 않다. 협상 도중 담당자를 바꾸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까 만무하다. 통상 전문가인 경제문제에 힘을 실었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던 종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23일 국회 포럼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돼선 안된다”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정부는 그동안 한미 FTA 반대 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이 가져올 성과를 홍보하면서 임기내 체결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그런 정부가 돌연 태도를 바꾼데다 열린우리당 의장까지 속도 조절론에 가세한 속내가 무엇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협상 실무팀장들이 대거 교체된 것도 심상치 않다. 협상 도중 담당자를 바꾸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될까 만무하다. 통상 전문가인 경제문제에 힘을 실었다. “국내 이해단체의 저항 때문에 한미 FTA에 못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던 종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시각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도 지난 23일 국회 포럼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며 한발 물러섰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역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정한 일정에 구속돼선 안된다”며 정부를 거들고 나섰다.

無等鼓

월드컵축구의 역사는 심판의 실수로 얼룩진, 오심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30년 우루과이 월드컵 프랑스와 아르헨티나전. 경기 가 모두 끝나고 사유장에서 몸을 씻고 있던 선수들이 그라운드로 다시 불려 나왔다. 이날 브라질 주심은 착각을 했는지 경기종료 휘슬을 6분이야 빨리 불었다.

그래서 선수들은 모두 경기장을 떠났는데 주변의 항의가 워낙 심해 다시 경기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 대회가 월드컵 1회 대회다.

판정과 관련된 논란의 역사에서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을 빼놓을 수가 없다. 잉글랜드와 서독이 결승에서 붙었는데 연장까지 가는 대접전이었다. 문제는 101분에 터진 잉글랜드 제프 허스트의 결승골이었다. 공이 크로스바를 맞고 떨어진 지점이 골라인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스위스 주심은 경기를 중단하고 선심과 상의를 했고 골로 인정해 잉글랜드가

우승했다. 이 골 논란은 1년 이상 세계 축구계를 시끄럽게 했다.

이 판정에 대한 감정은 다음대회까지 이어졌다. ‘오심’이라며 이를 갈던 서독은 4년뒤인 1970년 멕시코 월드컵 8강전에서 잉글랜드를 다시 만났다. 복수를 버트린 서독으로선 절호의 기회였다. 역시 연장전에서 서독은 3대2로 역전승하며 4년전 억울한 패배를 갱원하게 되었다.

2006 독일 월드컵에서도 크고 작은 오심 논란이 일고 있다. 스위스전에서 나온 아르헨티나 주심의 어처구니없는 판정에 한국 축구팬들의 감정은 극에 달해 있다. 재경기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주심을 축구장에서 영원히 퇴장시켜야 한다며 들끓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독일이 그랬던 것처럼 4년후 스위스 실록을 기약하는 것이 화를 식이는 방법일 듯 하다.

/기현호 체육·여론대체부장 kihh@



기고

강현옥



최근 질병관리본부에서 1999년 4월 1일부터 2004년 4월 9일까지의 부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 가운데 B·C형간염의 감염여부에 대한 조사 발표가 있었다.

이번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있는 혈액이 환자에게 수혈되어진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혈액원의 신뢰성과 혈액검사결과에 대한 안정성도 떨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결과는 헌혈을 저하와 혈액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그 모든 책임의 종착역은 적십자사의 방만한 운영의 결과로 받아들여져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병원노동자에게 무작위적인 구조조정으로 진행

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뒤로 한 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혈액사업을 마치 ‘피장사’로 치부하여 국민들과 병원의 환자들을 불모로 잡고서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혈액사업의 흑자전환을 요구하며, 부실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감원과 예산삭감 등을 보강복지부를 통해 준비중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라는 말인가.

헌혈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혈액관리 수준이 매우 미비하고 정부와 적십자사의 신뢰받지 못하는 혈액관리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안전한 혈액 공급과 안정된 수급을 위해

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현재의 혈액사업 정책이 공공성이 확보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안전한 혈액공급과 안정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잦은 혈액관련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의 검사법보다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결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보다 적은 인력, 장비, 예산으로 그와 같은 결과물을 원한다면 어떠한 결과와 예상될지는 누구나 잘 알 것이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의 절정은 혈액사업을 대한적십자사에 떠넘기고서 ‘부적절한 혈액유통’이라는 기회를 통해 방만한 경영이라는 이름표를 붙인 뒤 감원과 예산절감을 요구하고 국고지원 삭감만을 논하며 현실적인 혈액사업

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뒤로 한 채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혈액사업을 마치 ‘피장사’로 치부하여 국민들과 병원의 환자들을 불모로 잡고서 이익창출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혈액사업의 흑자전환을 요구하며, 부실기업이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감원과 예산삭감 등을 보강복지부를 통해 준비중이다. 이것이 얼마나 어불성설이라는 말인가.

헌혈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의 혈액관리 수준이 매우 미비하고 정부와 적십자사의 신뢰받지 못하는 혈액관리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혈액사업의 주체인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나서 ‘안전한 혈액의 공급과 안정된 혈액수급’을 위해 혈액사업의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하며 혈액사업의 정책, 인프라구축과 인력운용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 더욱 필요할 때라 생각된다. 국민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가족끼리 도서관 나들이, 자녀 인격형성에 도움

아이들을 데리고 가끔 대학 도서관, 시립 도서관에 간다. 공부하라는 말보다 도서관 분위기를 직접 보여주는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일거라는 생각 때문이다.

몇년전에 캐나다에 갔는데, 그곳 가정에서는 주말마다 자녀들이 얼마 아빠 손을 잡고 도서관에 나들이를 가는 것이 일반화 돼 있었다. 엄마가 맛있는 도시락을 준비해 나들이하는 기분으로 도서관에 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도서관 주변 잔디밭에 앉아 가족끼리 오순도순 얘기하는것만으로 아이들 인격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모는 그 곳에서 1주일동안 있었던 사

회·문화·역사와 시사적인 얘기를 재미삼아 몇가지씩 들려준 뒤 더 자세하게 가르쳐주겠다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가 아이들에게 책과 신문을 뒤적지게 한다는 것. 그러다가 재미있는 책이 있으면 빌려다 같이 읽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 내용에 관해 학교에 가서 선생님께 물어보게 시킨다는 것이다. 배울 점이 많지 않은가.

그동안 부족했던 가족간의 대화 시간도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도서관 나들이, 지금이라도 시작해보면 괜찮을 것 같다.

▲이슬·목포시 영해동



귀여운 물범



‘네이비셀’은 미국의 유명한 해병부대 이름. 여기서 셀(seal)은 물범의 영어단어다. 그렇다면 왜 물범이라고 부르는 걸까.

육지에 상륙해 물이 마를 때 보면 군대군데 점박이 무늬가 보이면 마치 표범갈아 물범이라 부르는 것 같다. 그런데 사납고 민첩한 표범들과는 전혀 다르다. 오히려 유순하고 평화로운 동물이 물범이다.

이 정도 접근하면 괜찮겠지 하고 조금만 가까이 가면 일제히 물 속으로 뛰어들다. ‘푸~푸~’

까망고 커다란 눈, 얼굴을 빙 둘러나 있는 수염(감각모), 둥그란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귀여운 강아지 얼굴

같다. ‘푸~푸~’속에서 들어온 바닷물을 내뿜는 콧방귀 소리도 시끄럽지 않다.

조금만 다가가면 물로 뛰어들었다가 뼈죽 얼룩을 내미는 호기심 많고 앙증맞은 물범 모습 속에 바로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보면 너무 지나친 생각일까.

누구에게도 해 가칠 것 같지 않은 이 동물에게도 적은 있다. 북극곰이나 범고래의 먹이로 희생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대의 적은 인간이다. 포피를 얻으려고 물범에게 총질, 대량 살육하는 모피 상냥인들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최종옥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인사예절’은 기본예의... 인색하지 않았으면

거리를 걷다가 마주오는 사람과 부딪혔다. 빠른 걸음으로 나를 지나쳐려다가 생긴 일인데,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무 소리 없이 가버리고 나만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외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과 몸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물론 그와 비슷한 상황만 발생해도 입에서 자연스럽게 ‘Sorry(미안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동시에 자신도 남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의식의 표현이다.

영국 연수 중이 일이 인상깊어 나도 ‘Sorry’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게 되었고 그동안 생활하면서 익숙해졌다.

귀국한 뒤에도 입에서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튀어 나온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거나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때는 오히려 더 민망스러울 때가 많다. 남을 위한 배려는 나라를 초월하는 생활의 기본 예의라고 생각된다. ‘미안하다’는 말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은규·광주시 광산구 광산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鏡, 편집국장 池炳源.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